

언론 사람

언론중재위원회 NEWS

www.pac.or.kr

Special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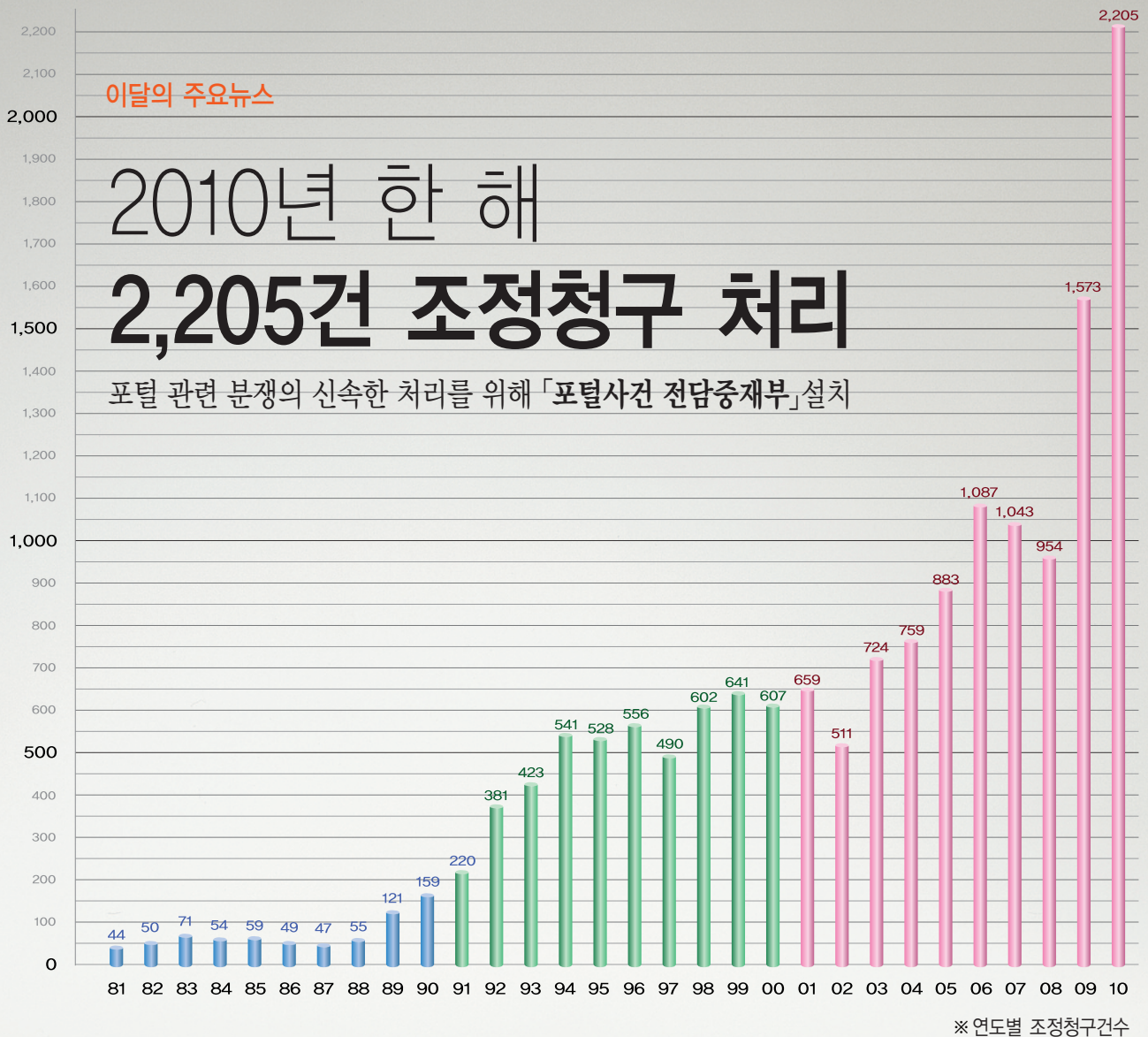
2010년 한 해
2,205건 조정청구 처리



2011. February

2

- 03 이달의 주요뉴스
2010년 한 해 2,205건 조정청구 처리
- 04  인터뷰-한국소비자원 김영신 원장
“눈높이에 맞춘 새로운 소비자 문화 형성”
- 06  위원단상
여가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 07  직원마당
하루여행
- 08  인턴쉽 프로그램 수료기
도와줘요! 언론중재위원회
- 09  기고-박기쁨 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언론과 언론재판 2
- 10  불수건 강산에 이일환의 음악의 발견
강산에 ‘손’
- 11 이런얘기 저런얘기
왕의 귀환 _ 한국축구 아시안컵 잔혹사
- 12 위원동정
- 13 위원회 뉴스
- 14 위원회 통계 현황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는 2010년 총 2,205건의 조정청구사건과 77건의 중재청구사건을 접수·처리했다. 조정청구사건이 2천 건을 넘은 것은 위원회 설립 이후 처음이며, 전년(1,573건)에 비해 632건이 증가한 것이다. 피해구제율은 79.2%로 이 또한 위원회 설립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2,205건에 대한 조정처리결과는 취하 1,131건(51.3%), 조정성립 630건(28.6%),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직권조정결정) 149건(6.8%), 조정불성립결정 157건(7.1%), 기각 137건(6.2%)의 순으로 나타났다. 취하 건수가 많은 것은 조정과정에서 언론사가 사전에 정정보다나 반론보도를 해주거나 포털의 경우 조정대상 기사를 삭제하는 등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져 취하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취하된 사건 중 79%에 해당하는 891건에 대해 정정보다나 기사삭제 등이 이루어졌다.

매체유형별 청구현황을 살펴보면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 841건(38.1%), 인터넷신문 567건(25.7%) 등 인터넷 매체가 1,408건으로 전체 사건 중 63.8%를 차지했고, 신문과 방송이 각각 540건(24.5%)과 189건(8.6%)으로 뒤를 이었다. 손해배상청구건수는 773건이었으며, 이 중 588건(80.0%)이 금전지급을 비롯해 기사삭제, 정정·반론문 게재, 유감표명 등 다양한 유형으로 해결되었고 평균 배상액은 183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2월 1일부터 포털을 대상으로 접수된 언론분쟁 사건의 빠른 심리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포털사건 전담중재부’를 운영하고 있다. ‘포털사건 전담중재부’의 도입은 파급력이 큰 포털의 특성을 고려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사건의 조기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며, 국정감사에서도 제도도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10년 접수된 2,205건의 조정청구사건 중 36.4%에 해당하는 803건이 포털 관련 사건일 정도로 포털로 인한 피해의 확산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포털사건 전담중재부 도입이 해당 사건처리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분쟁의 빠른 해결과 피해의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눈높이에 맞춘 새로운 소비자 문화 형성”



한국소비자원
김영신 원장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객원교수
Ohio State University 객원교수
충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학장

한국수자원공사 비상임이사
한국소비자학회 회장
한국소비문화학회 회장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지난 1987년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지난 2007년 소비자기본법의 개정으로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을 변경하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비자문화의 새로운 소통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아픈 배를 쓰다듬어 주시는 어머니처럼, 부드럽고 세심한 리더십으로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ADR 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을 이끌고 있는 김영신 원장을 만나보았다. (편집자 주)

Q.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자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불만을 해결해주는 기관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이외에도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정부의 다양한 소비자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연구·개발, 물품·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시험검사,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의 수집·제공, 소비자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Q. 소비자원은 국민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ADR기관이라 할 수 있는데요, 주요 사업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소비자원은 매년 30여만 건의 소비자상담과 2만여 건의 합의관고를 통해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합의관고를 통해 당사자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 경우 매년 1,000건 이상의 일반분쟁조정 사건과 20여건의 집단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우리나라 최고의 ADR기관으로서 자리잡았습니다. 특히 소비자피해가 다수 발생하는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2007년부터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고, 2010년까지 3만 여명의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금년에는 소비자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동차, 금융·보험, 의료서비스 등 전문분야의 분쟁조정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Q. 소비자원에서 다루는 분쟁의 종류는 상품의 종류만큼이나 많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다양하게 나타나는 분쟁의 양상에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요?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사업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과 여러 분야의 전문가 조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변호사 등 전문분야의 위원들이 품목에 따라 비상임으로 조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 농업, 자동차, 인터넷게임 등 33개 분야의 전문위원회가 구성되어 100명의 전문위원이 위원회 개최 전에 조정사건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되어 3인~5인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는 소회의제도가 도입되면 앞으로 더욱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리라 기대됩니다.

Q. 최근 국내에서 ADR 기본법 제정과 관련해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국내의 대표적인 ADR 기관인 소비자자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최근 언론중재위원회가 제안한 ADR기본법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 형태로 존재하는 국내 ADR 기관이 재판과 같은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ADR 기본법의 제정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에 대해 민사조정법을 준용하고 있으나, 민사조정법은 재판절차와 연계되어 있어 실제 적용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재판상화해의 효력을 부여할 수 있는 ADR기관의 경우 ADR기본법을 통해 조정절차를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Q.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구제 뿐 아니라 피해예방활동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합리적인 소비자상 정립을 위한 소비자교육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국민과 관계기관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꾸준한 성과와 활동결과에 대한 비결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현명한 소비자로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스스로 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를 위해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필요한 가격정보, 품질비교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전국의 주요 유통매장에서 판매하는 생필품가격을 실명으로 공개하는 T-price 사업(<http://price.tgate.or.kr>)은 가격인하로 소비자의 후생증진 뿐 아니라 업체의 공정경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외되거나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해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국립장애인 도서관 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시각장애인용 점자교재를 생산·보급했으며, 올해에도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콘텐츠의 생산과 교육 활동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Q. 끝으로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다면?

소비자는 이제 단순히 ‘값을 치르고 소비’만 하는 ‘보호의 대상’에서 벗어나 정확한 인식과 합리적인 선택행위를 통해서 기업의 체질을 강화시키고, 나아가 국민경제를 튼튼히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의 사후적 구제는 물론, 앞으로 소비자 역량의 강화를 통해 이러한 ‘책임 있는 소비자’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인터뷰/남승균, 사진/김민정(이상 홍보팀)

여가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강 미 은 위원
서울제2중재부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주5일제 근무를 하게 되면서 여가 시간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그 시간을 어떻게 쓸까? 한 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처음에는 이틀간의 여가를 어떻게 잘 놀까 고민을 한다. 지금까지 가지지 못했던 새로운 생활방식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다. <주말의 달인>, <주말형 인간> 같은 책을 보면서 열심히 주말을 잘 보낼 연구를 한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틀간의 여가 중 하루 정도는 다시 새로운 일을 하면서 돈을 벌 방법을 찾게 된다고 한다. ‘투잡스 족’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틀을 다 놀지 않고, 여가를 또 반으로 나누어서 쉬는 것 반, 일하는 것 반으로 일상생활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지도 모른다. 놀기만 하자니 시간이 좀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것이다. 주 5일제 근무가 당연한 것으로 정착된 미국에서는 이미 일상화된 현상이기도 하다. 여가 시간이 많아지면서 필요에 의해서 ‘투잡스 족’, ‘쓰리잡스 족’이 많아질 수도 있다. 새로운 일을 찾지는 않더라도, 자기 계발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을 늘릴 수도 있다.

역사적으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여가 시간은 점점 늘어났다. ‘무어의 법칙’은 컴퓨터의 정보처리용량이 18개월마다 두 배가 된다고 예언했다. 아직까지는 그 예언이 맞아 떨어지고 있다. 그런 과학 기술의 발전 덕분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시간이 절약되고 있다. 꼭 해야 되는 일에 들어가는 시간이 줄어들면,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 또 다른 일을 효율적으로 하거나 여가 생활을 즐기게 된다.

미국의 미디어랩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앞으로 2020년에는 산업의 50퍼센트가 여가와 오락 산업이 된다고 한다. 여가를 즐겁게 보내고,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문화 산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새로운 경험을 축적하기 위해서 돈과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붓게 된다. 여행 산업이나 영화, 음악, 전시회와 같은 예술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지게 된다고 한다.

사실 휴가 때 여행을 가는 것은 그동안 피로했던 몸과 마음을 쉬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경험을 축적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이때까지의 일상과는 다른 경험, 색다른 일상을 맛보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든다. 파리의 에펠탑 꼭대기에서 커피 한 잔에 10달러를 내고 마시는 것은, 새로운 경험을 축적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다. 해외여행을 ‘패키지 투어’로 하게 된 것도 그리 오랜 일은 아니다.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미래의 여가 시간은 이런 새로운 경험을 축적하는 것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그리고 그 경험이라는 것이 반드시 특정한 장소에 힘들게 비행기를 타고 가야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이버 세상에서, 홀로그램으로, 3D 기술을 통해서 우리 집 거실에 앉아서도 에펠탑 꼭대기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경험의 축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과학 기술은 발전할 것이고, 사람들은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더 즐겁고 감칠맛 나게 만들기 위한 콘텐츠 개발 산업이 붐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문화 산업, 여가 산업, 예술에 관련된 콘텐츠 산업이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커질 수밖에 없다.

사람마다 여가를 보내는 방식은 다양하다. 오래간만에 집안에서 그야말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며칠씩 지내는 방식도 있다. 무조건 밖으로 나가야 여가다운 여가를 보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어떤 방식이건, 나의 경험을 보다 다양하게 만들어 가는 과정이 여가의 핵심이다. 앞으로는 이런 경험을 보다 다양하게, 즐겁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문화 산업과 여가 산업이 더욱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우리가 문화와 여가 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 당신의 여가 시간이 우리의 산업이 되는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여가는 어떻게 보내시는지요?

하루여행



김 태 호 (조사팀)

새벽 3시 30분. 자명종의 알람과 휴대전화 알람이 동시에 시끄럽게 울어댄다.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몸을 억지로 일으키곤 서둘러 알람소리부터 잠재운다. 그리고는 곧히 잠들어 있는 아내를 조용히 흔들어 깨운다. 아내 역시 나처럼 쉬이 잠을 쫓지 못하는 눈치다. 어느덧 4시 30분. 대문을 열자 한겨울 새벽공기가 제법 매섭게 얼굴에 스친다. 차에 시동을 걸고 엔진이 예열되기를 기다리며 네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한다. 오늘의 목적지는 강원도 삼척. 자동차의 엔진소리가 잠잠해졌을 즈음, 드디어 가속페달을 힘차게 밟는다.

어느새 영동고속도로, 한밤의 고속도로는 꽤 고즈넉하고도 외롭다. 심야 라디오 방송의 볼륨을 한껏 키우고 속도를 올려본다. 빛보다 빠르게 차선들이 바퀴를 훑고 사라진다. 한 시간 쯤 달렸을까, 일찍 일어난 탓인지 졸음이 몰려온다. 마침 저 멀리 휴게소 불빛이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떠오른다. 뜨끈한 국수 국물 한 사발로 졸음과 추위를 동시에 해치우고 다시 길을 나선다. 어느덧 새벽 동이 터 오른다.

7시를 조금 넘은 시간. 동해고속도로의 마지막 휴게소에 도착한다. 일출을 볼 수 있는 휴게소라는 말은 진실이다. 동해바다를 발판삼아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은 그 자체로 감동적이다. 발간 얼굴을 수줍게 밀어 올리다가 어느새 엄청난 기운으로 쑥 하고 솟아오른다. 순식간에 이미 해는 수평선 이만치 올라온다. 사진으로 남겨보자는 생각도 잠시, 이내 그 아침 첫 해의 기운을 온 몸으로 받는다. 말갭게 솟은 해를 보며 새벽 시간을 내어 준 보람을 오롯이 느껴본다. 그렇게 새 날의 새해와 조우하고 다시 길을 나선다.

낮선 풍경은 묘한 설렘과 기대감을 준다. 생전 처음 와 본 삼척 시내의 모습 역시 그런 느낌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오밀조밀 모여 있는 건물들과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채롭다. 익숙한 것, 일상적인 것에서 벗어나 낮선 것들과 마주하는 것이 여행의 목적이라면 벌써 그 목적을 받은 달성했다. 사람 사는 게 다 비슷비슷하다 하지만 웬지 이 삼척 사람들은 무언가 나와 다른 인생의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만 같은 느낌, 그런 삶의 일면을 지금 이 아침에 살짝 들춰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절로 웃음이 난다. 힘들어도, 피곤해도 여행을 떠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닐까.

드디어 오늘의 목적지인 삼척 용화리에 도착한다. 여기는 해양 레일바이크가 유명하다. 바다를 옆에 끼고 힘차게 페달을 밟아 5Km 정도를 달리는 코스. 레일 너머 보이는 파란 바다와 하얀 백사장이 벌써부터 마음을 설레게 한다. 드디어 입장이 시작되고 운 좋게도 맨 앞의 레일바이크에 앉는다. 천천히 발을 굴러본다. 시리도록 찬 겨울바람이 귓가를 날카롭게 베며 스쳐가지만 기분은 상쾌하다. 적당히 힘을 들여 페달을 밟고 천천히 주변의 경치를 감상하며 레일 위를 흐르는 이 느낌, 참, 좋다. 여유롭고 한가하게 고즈넉한 시간을 보내는 이 맛, 이 맛

때문에 주말이면 몸이 들쭉거리게 되는 모양이다. 아쉽게도 벌써 종점이 눈에 들어온다. 하나라도 놓칠 세라, 시선은 파도가 밀려오는 바다로 자주 향한다. 이렇게 눈과 가슴에 담은 바다를 또 언제 보러 올 수 있을는지. 아쉬움에 발이 떨어지지 않지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 레일바이크와 작별을 고한다.

삼척의 어느 작은 어촌 마을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다. 가격은 5,000원. 메뉴는 해물 된장찌개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맛있지는 않지만 웬지 모르게 바닷내가 한가득 양념으로 들어가 있는 것만 같다. 막 새벽 조업을 마친 통통배들이 뱃고동을 힘차게 울리며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며 주린 배를 채운다. 이 시간 서울에 있었다면 결코 느껴볼 수 없었을 낮섬과 맛, 새벽을 가른 터라 길고 긴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그만큼 채워지는 한가로움 덕분에 기분이 참 좋다. 여행은 익숙한 것에서 과감히 벗어나보는 것 그리고 잊누르는 일상의 고민들을 잠시라도 내려놓고 여유를 찾을 수 있기에 행복한 것은 아닐지. 어느새 밥 한 공기는 금세 바닥을 드러내고 식당 할머니가 맛나게 타주시는 다방 커피 한 잔으로 소박한 점심의 대미를 장식한다.

돌아오는 길, 아쉬움에 태백으로 향한다. 특별히 무언가를 보겠다는 것보다는 이대로 일상에 복귀하는 것이 못내 서운한 것일 게다. 석탄 냄새가 물씬 풍겨올 것만 같은 태백의 건물과 사람과 자연이 눈에 들어온다. 이번엔 스치듯 지나치지만 조만간 꼭 오리라 다짐하며 작은 식당에 잠시 머무른다. 메뉴는 곤드레전과 도토리묵. 막걸리 한 잔이 간절히 생각난다. 태백산에서 직접 캐온 것이라는 주인아저씨의 자랑이 대단하다. 그래서인지 태백산의 숨결이 술책 녹아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다. 어느새 날은 저물어가고 곤드레전과 도토리묵도 바닥을 드러낸다. 이제는 정말로 돌아가야 할 시간. 아쉬움에 발걸음이 쉬이 떨어지지 않는다.

일상으로 향하는 그 길은 한밤에 내가 보았던 그 길과 사뭇 다르다. 한적함과 여유는 사라지고 책임과 의무 같은 무거운 짐이 한가득 길위를 누르고 있는 느낌. 작은 한숨이 새어 나온다. 익숙함에 길들여지고 낮섬을 두려워하면서도 늘 일상탈출을 꿈꾸는 이율배반적인 우리네 삶이란... 그래서 늘 꿈만 꾸지만 때론 과감히 실행할 용기가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여행의 참모습은 아닐지. 비록 오늘은 이렇게 다시 돌아가지만 언젠간 또 다시 일상을 박차고 길을 나설 모습을 꿈꾸며 하루여행의 아쉬움을 달래본다. 저녁 8시가 갓 넘은 시각. 현관문을 열자 ‘혹’ 끼쳐오는 익숙함이 마냥 싫지는 않다. 하루를 두 번 산 것 같은 기분, 웬지 모를 뿌듯함이 가슴속을 채워온다. 다시 침대에 등을 붙인다. 삼척의 바다, 태백의 산들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스쳐지나간다. 스르르 감기는 눈과 함께 하루여행도 그렇게 추억 속으로 침잠한다.



김 소 진
광주중앙고 신문부 길가온

도와줘요! 언론중재위원회

강연장에 강사님이 들어오셨다. 맨 앞줄만 행~하자 앞자리로 옮길 자원자를 찾았다. 고요하다. 역시 다들 질문의 위험이 있는 앞자리는 부담스러운 게다. 괜히 눈이 마주치자 어색해서 씨익~웃었는데... 아뿔싸!-_- 내게 맨 앞자리로 옮기라 손짓을 하셨다. 강사님과도 스크린과도 너무 가까운 맨 앞줄에서 나는 약간 긴장한 상태로 강연을 듣기 시작했다.

“언론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질문은.. 누가 대답해 볼까요?”라며 명단을 쓱 훑어 보시는 강사님.

“김소진 학생이 대답해 보죠?^^” 어떻게 딱 내 이름을 고르신 건지,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대답을 했다. 언제 또 질문을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강사님의 설명 하나하나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

정정보도의 예로 실제 뉴스 장면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는 몇 년 전 내가 본 내용들도 있었다. 택시기사와 손님이 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손님이 택시기사를 우발

적으로 살해했다는 내용의 뉴스기사였다. 워낙 충격적인 내용이라 기억에 오래 남았던 기사였지만 정정보도를 통해 본 사실은 전혀 달랐다. 요금문제로 인한 실랑이는 있었지만, 기사는 손님과 무관하게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정정보도가 아닌 처음 보도된 오보였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은 ‘무고한 이’가 ‘가해자’가 되어버린 오보였다고 생각하니 그동안 당연히 ‘진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왜곡된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씁쓸했다.

과거에 비해 정보를 공급하는 언론기관이 많아졌고, 제공되는 정보의 양 또한 크게 늘었다. 그러나 정보가 늘어난 만큼 본인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정보가 노출될 위험성이 커졌으며,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 또한 많아졌다. 하지만 피해를 호소하는 까다로운 법적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도 드물뿐더러, 설사 안다고

해도 그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도 전에 ‘포기’하기 십상이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생긴 기관이 바로 ‘언론중재위원회’이다. 잘못된 보도 사실을 안 지 3달 이내에 신청을 하면 누구라도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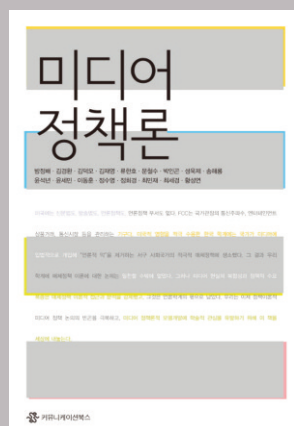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가 피해자의 상처를 모두 아물게 해줄 수는 없지만 새 살이 돋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다. 그러므로 대중은 언론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이면의 진실도 볼 수 있는 ‘눈’을 갖추어야하고, 언론사는 잘못된 보도로 인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많은 이들을 한 번 더 생각한 진실성 있는 보도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0년 한 해에만 2,205건의 조정신청이 있었다고 한다. 언론중재를 통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언론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 받았으면 좋겠다. 나아가 2011년 한해는 좀 더 세심한 보도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달의 책

미디어 정책론

방정배 외 16인 지음 | 커뮤니케이션북스 | 513페이지



성균관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을 연구·교육한 방정배 교수를 비롯해 각 대학교수 16명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올바른 미디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국내 미디어 정책 전반을 돌아켜보고 ‘판’을 다시 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시점에서 이 책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예사롭지 않다. 저자들은 신문, 잡지, 방송, 출판, 케이블 TV, IPTV, 인터넷 등 매스미디어와 뉴미디어 전반과 정책적 이슈를 돌아보고, 미디어 정책의 기초와 쟁점을 살핀다.

1부에서는 신문 미디어, 출판 미디어, 공영방송, 방송광고 운영, 지상파TV, IPTV 등의 미디어정책 상들에 관해 분석한다. 2부에서는 방송통신 규제체계와 공익성, 미디어 소유 집중과 다양성 문제, 방송의 재원구조와 미디어렐, 인터넷 공간의 명예훼손 등 현안을 체계적으로 점검한다.

이 책은 과거 미시적 미디어 정책에서 벗어나 오늘날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생태계를 관통하는 정책 이슈들에 대해 다양한 정보와 대안을 공유하고 보다 큰 틀의 미디어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안내서로서 부족함이 없다.



박기쁨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언론과 언론재판²

(1월호에 이어)

현대사회와 언론의 앞으로의 방향 - 인터넷 등의 발달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네티즌에 의한 사생활 침해나 댓글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이 갈수록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나아가 휴대전화로 동영상도 손쉽게 촬영할 수 있고 그 영상을 가감 없이 인터넷에 올릴 수 있게 되면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영상이 자신도 모르게 인터넷에 떠돌아 그로 인한 명예훼손이 이슈화되고 있다.

포털사이트의 경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되는 언론매체인지가 문제되었으나, 대법원 판결에서 포털이 언론매체에 포함된다는 판단 하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이후 포털사이트에 비방 댓글 등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글이 올라올 경우 댓글쓰기 기능을 차단한다든지 관련 기사 자체를 삭제하는 등 과거에 비해 명예훼손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블로그나 트위터, 스마트폰 등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정보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에 대한 대응은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개개인 스스로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올리기 전에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당 내용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숙고하고 행동하는 의식의 발전이 필수적이겠지만, 포털사이트의 지속적인 노력 역시 요구된다고 하겠다.

법원의 역할

지금까지 언론사건 판결을 하면서 사실적시로 볼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으로 볼 것인지 구분이 어려운 사건도 많았고, 단순 의견표명이거나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 이를 모욕으로 보아 손해배상이 인정된다고 불지에 관하여도 많은 고민이 있었다. 또한 감정 결과가 상반되게 나왔을 때 허위인지 진실인지를 구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고, 명예훼손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일정액 이상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며, 뒤늦은 정정보도 등으로 인하여 시의적절한 대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기존의 사례 분석 등을 통해 명예훼손과 관련한 사

실과 의견의 구분 등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판하고, 현실적인 위자료 액수의 산정으로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명예훼손 사건의 예방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의 조화

갈수록 사생활 침해여부에 관한 논란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헌법상 가치인 표현의 자유 보장과 타인의 인격권 또는 사생활 보호라는 두 법익의 충돌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의 쉬운 일이 아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나,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의 사적 법익 역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기 때문이다.

언론기관은 그 영향력을 고려해 보다 신중하고 정확한 보도를 해야 할 것이나, 언론기관의 공적책무에 기한 비판적 보도의 증가와 그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고도의 공적 영역에 대한 보도의 경우 명예훼손의 면책에 관한 심사기준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의 경우 그 신속성과 전파력을 고려할 때 악성댓글이나 무분별한 동영상, 개인신상 공개 등을 통제할 수단이 필요하겠으나, 정부기관의 자의적이고 과도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고, 나아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그 규제로 인해 보호되는 다른 표현에 대해 위축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금지되는 표현이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는 대체로 규제받을 것을 우려해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일환의 음악의 발견

강산에 ‘손’

이일환(음악방송 Satio PD)



▲ 강산에 8집 「물수건」

세상 사람들이 저마다 ‘사랑’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의를 가진 것처럼 ‘음악’도 그러하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음악’이란 ‘멜로디(선율)’와 ‘가사’의 합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멜로디’와 ‘가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미만일 수도 있다(물론 음악에 따라서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다). 음악(Music)은 단순한 소리(Sound)와 구분된다. 에드가 바레즈에 의하면 음악은 ‘조직된 소리 organized sound’이다. 하나의 음악은 음높이, 음량, 리듬, 템포, 음색, 음상 등등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뇌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며 보다 고차원적인 박자, 선율, 화성 등으로 인식하여 음악적인 감흥을 만들어낸다. 같은 음악이라도 사람마다 감흥이 다른 것은 사람마다 집중하는 요소들의 배분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멜로디에 집중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미묘한 음색이나 리듬의 변화에서 더 큰 즐거움을 느끼기도 한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음악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에 고르게 집중할수록 지금까지와는 다른 미적 경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보통 베테랑이라고 하는 애호가들의 취향을 보면 멜로디와 가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애호가들은 멜로디와 가사보다는 사운드의 텍스처(Texture)를 즐긴다. 텍스처를 즐긴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잘 짜인 직물을 손으로 만져보고 느끼는 것과 같다. 음높이, 음량, 리듬, 템포, 음색, 음상의 변화, 그 변화가 씨줄과 날줄로 어우러지면서 만들어내는 소리의 독특한 울림과 질감을 즐기는 것이다. 그러나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멜로디와 가사가 품은 매력은 원초적이고 때론 압도적이기까지 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음악하면 ‘멜로디’와 ‘가사’를 떠올릴 정도로 ‘멜로디’와 ‘가사’의 작용은

직접적이면서 위력적이다. 2008년에 발표된 강산에의 여덟 번째 앨범 「물수건」에 수록된 ‘손’이라는 곡을 들어봐도 잘 알 수 있다.

이 곡은 ‘러브송’이다. 보통의 러브송과 다른 것이 있다면 사십을 넘긴 남자가 부르는 러브송이라는 점이다. 아이돌 가수들의 러브송처럼 드라마틱한 멜로디나 화려한 수사로 꾸며진 열정, 절절한 고백이나 다짐은 찾을 수 없다. 오히려 멜로디도 가사도 단조롭게 반복된다.

“이토록 작은 손이었나 / 그랬었나 너의 손이 / 이토록 못난 손이었나 / 그랬었나 너의 손이 / 오랜만에 잡아보는 그 너의 작고 못난 손이 / 내 속안으로 들어와 날 만지고 있네”

이 곡은 음악적으로 특별한 구석이 없다. 시타(Sitar) 연주가 들어갔지만 그저 하나의 악기 이상의 특별한 효과를 빚어내고 있다는 느낌은 없다. 이 곡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은 온전히 멜로디와 가사의 힘이다. 가사 그대로 오랜만에 잡아본 누군가의 손에서 느껴지는 상념, 손으로 표상되는 일상적인 것에 대한 새삼스러운 관심이나 발견이라고 해도 좋겠다. 단조로운 멜로디와 가사가 반복되면서 중첩되는 동안, 듣는 사람의 속에서도 누군가에 대한 새삼스러운 마음이 쌓여갈 것이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나 가족의 손을 쥐었을 것이고, 친구나 동료의 손을 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곡의 멜로디는 아주 차분하게 그 손이 바로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도록 지탱해주고 만들어준 고마운 손, 지금 내 곁에 없다는 것을 상상하기 힘든, 그저 오래도록 내 곁에 머물러주길 바라는 손이라는 것까지 담으로 이야기해준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러하듯이 이 곡도 아마 음악이 먼저 만들어지고 나중에 가사가 붙여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멜로디에 꼭 맞게 끼워진 가사는 좀처럼 만나기 쉽지 않다. 불혹을 넘긴 남자가 만들어낸 러브송은 그의 세월이 빚어낸 만큼의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위로한다.



왕의 귀환 _ 한국축구 아시안컵 잔혹사

드라마 '근초고왕'에서 비류왕의 아들 부여왕자는 왕자로서 훈육받지 못하고 소금장수로 자라며 험한 시장통에서 갖은 고생을 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그런데 사실 여부를 떠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결말은, 어떤 고난에도 그는 결국 왕이 된다는 것이다.

지난 1월 국가대표 축구팀은 '왕의 귀환'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51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했다. 남자축구만 놓고 보면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브라질이요 스페인이다. 86년 멕시코 월드컵부터 7회 연속으로 출전했고, 아시아 유일의 월드컵 4강 진출국이며, 지난 남아공 월드컵에서는 사상 최초로 원정 16강에 오른 아름다운 기억들을 우리는 갖고 있다.

그러나 아시안컵에서는 이야기가 다르다. 51년 동안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못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거짓말 같다. 1, 2회 대회 우승을 제외하면 아시안컵은 '잔혹사'라고 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우리 축구의 트라우마다. 이회택, 차범근, 허정무, 최순호, 김주성, 황선홍, 홍명보에 이어 박지성과 이

영표까지, 누구도 우승컵을 들어올리지 못했다. 이정도로 잔혹사라고 하기는 어려울까? 그렇다면 또 있다. 84년에는 4경기에서 1골만 겨우 넣고 결선진출에 실패했는가 하면, 본선에 올라가지도 못한 경험마저 있다. 그것도 무려 세번(1968, 1976, 1992년)이나!! 그새 우리가 한 수 아래로 본 일본은 무려 4번의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 '왕의 귀환'을 기다렸던 축구팬의 마음은 한결같았다. 박지성, 이영표의 노련미에 이청용, 기성용의 젊은 피까지 더해진 대표팀은 전에 볼 수 없던 세련미를 보여주며 예선전에서 호주를 압도하는 플레이를 선보였고, 96년 우리에게 6-2 대패의 악몽을 안겨주었으며 20년간 5번이나 8강에서 만난 악연의 이란마저 물리쳤다. 그런데 이런 대표팀이 한 수 아래 일본에게 발목을 잡힐 줄이야! 일본과의 4강전은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명승부였으나, 믿고 싶지 않은 패배 후 19살의 공격수 손흥민이 터뜨린 눈물을 보며 우리는 쓸개를 씹듯 쓰디쓴 기억을 하나 더 안게 됐

고, 다른 나라도 아닌 일본에 패배한 후유증과 아시안컵의 고풍내 나는 징크스에 오랫동안 시달리게 되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을 가볍게 물리치고 3위를 차지한 대표팀은 예전과는 달랐다. 은퇴를 선언한 박지성과 이영표는 3위 트로피를 들고서도 자랑스럽게 행가래를 받았다. 그들은 이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조광래 감독도, 선수들도, 모두 웃고 있었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는 아시아에서 가장 매력적인 축구를 하는 나라의 국민이었고, 우승컵을 들어 올리지 못했어도 그들은 아시아의 왕이었다.

'근초고왕'의 조바심나는 스토리로 인해 시청자는 늘 애가 탄다. 그러나 부여구 왕자가 결국 왕좌에 오를 것을 알기에 우리는 드라마의 매력을 즐길 수 있다. 다음 대회는 2015년 1월 4일 호주에서 열린다. 55년 만에 호주에서 열릴 '왕의 귀환'이라는 드라마를 기다리는 것은 축구팬의 또다른 희열이다.



COMMISSIONER



'사랑의 쌀 릴레이' 행사 참석



권성 위원장은 지난 18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사랑의 쌀 릴레이' 행사에 참석했다. 인간성회복운동 추진협의회가 '함께 살아요! 고통을 나눠요! 캠페인'의 일환으로 주최한 이 행사에서 권 위원장은 300가정에 쌀을 나누어 줬다. 권 위원장은 "정부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찾아서 우리 스스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4차 공청회 참석



강영수 위원(서울제3중재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은 1월 20일 열린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4차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와 관련한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강 위원은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의 경우 최장 50년까지 유기징역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엄정한 양형을 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SBS 뉴스

「재판의 법리와 현실」 출간



고종주 위원(부산중재부, 부산지법 부장판사)은 30여년의 법관생활 동안 기억에 남는 판결과 소화를 담은 산문집 「재판의 법리와 현실」을 출간했다. 고 위원은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표현하고자 했던 말과 글의 일부를 정리한 책"이라며, "스스로 깨우치고 다잡기 위한 일종의 자성록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강원지방변호사회장 재추대



이택수 위원(강원중재부, 강원지방변호사회 회장)은 1월 17일 강원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재추대됐다. 이 위원은 "지난해 문을 연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설립에 맞춰 강원지역 변호사들도 힘을 모아 도민들의 향상된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마트 미디어 환경 도래와 뉴스 미디어의 미래' 세미나 참석



차재영 위원(대전중재부,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은 1월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스마트 미디어 환경 도래와 뉴스 미디어의 미래'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출범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된 이 세미나에서는 뉴스 미디어와 저널리즘의 변화에 대한 전망과 이를 대응하기 위한 재단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남산공원 내 석호정(石虎亭) 존치를 위한 공청회' 참석



안병준 위원(서울제1중재부, (전)내일신문 편집국장)은 1월 20일 충무아트홀에서 열린 '남산공원 내 석호정 존치를 위한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는 동아일보 박영균 논설위원이 진행했으며, 서울대 김형국 명예교수, 서울시 최광빈 푸른도시국장, 서울시의원 최강선 의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자들은 우리문화 보호를 위해 석호정을 존치시켜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방통융합과 미디어지형 변화' 심포지엄 사회



유익선 위원(서울제7중재부,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과 교수)은 1월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통융합과 세계 주요국의 미디어지형 변화' 심포지엄에 제3세션 사회자로 참석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개최한 이 심포지엄에서 유 위원은 주요 선진국의 미디어지형 변화를 살펴보고 국내 미디어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재추대



위철환 위원(경기중재부, 대한변호사회 협회)은 1월 19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19대 회장으로 재추대됐다. 위 위원은 "경기고등법원 유치운동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회와 대법원을 상대로 한 입법화 운동을 적극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스마트미디어 시대와 한국 방송통신 정책의 발전방향' 세미나 사회



한진만 위원(강원중재부,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1월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스마트미디어 시대와 한국 방송통신 정책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 사회자로 참석했다. 한국방송학회와 여의도클럽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 세미나에서는 미래 방송통신 규제정책을 제안하고, 미디어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중재부 전·현직 중재위원 모임(중경회,仲京會) 발족



경기중재부 전·현직 중재위원 모임인 중경회(仲京會)가 지난 11일 발족됐다. 이날 모임에서는 아주대 김수근 명예교수가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박석태 전 경인일보 논설위원과 신용석 변호사가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중경회는 매년 2월 중 정기모임을 개최할 예정이다.



법원인사로 중재부장 11인 인사이동

중 재 부	성 명	인 사 일	현 직	변 동 사 항
대구중재부	정용달	2011.2.17	대구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대전중재부	이승훈	"	대전지법 부장판사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제6중재부	조원철	2011.2.28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제7중재부	이 름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경기중재부	정일연	"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강원중재부	박홍래	"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 여주지원장
제주중재부	박재현	"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광주중재부	김병하	2011.2.17	광주지법 부장판사	퇴 직
서울제2중재부	이병로	2011.2.23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제1중재부	여상원	2011.2.28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충북중재부	황성주	"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중·고등학생대상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중재위원회는 겨울방학을 맞이한 중·고등 학생 210여명을 대상으로 총 9회에 걸쳐 인턴십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참여 학생들은 언론의 자유와 책임,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사례 및 언론중재위원회 기능에 대한 교육을 받고 위원회 심리실 등을 견학했다. 지난 여름방학에 최초로 실시한 중재위원회 인턴십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과 반응 속에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2011년도 상반기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교육 실시



2011년도 상반기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교육이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실시됐다. 총 7명(인하대 2명, 연세대 2명, 한양대 2명, 경희대 1명)의 법학전문대학원생이 참여한 실무교육은 언론중재제도와 시정권고제도의 이해, 언론분쟁의 종류 및 해결 방안, 심리 참관 및 기록검토, 조사관 체험 및 언론중재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설명 등으로 이루어졌다.

2010 연간보고서 발간



중재위원회는 2010년 위원회의 활동결과를 수록한 「2010 연간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간보고서에는 조정·중재 사건 처리 등 위원회 주요 사업과 그 외 일반사업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발족

오는 4월 27일에 실시되는 2011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위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2월 26일 설치된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5월 27일까지 90일동안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 공정성 여부를 심의한다.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 인사 (2011. 2. 7. 자)

▲전보

[접수상담팀장] 여종국 [기획팀장] 구윤희

▲파견

[국방대학교] 손정배

해외통신원 위촉

위원회는 기간지 「언론중재」를 통해 해외 각국의 언론법제와 언론피해구제 제도의 동향을 소개할 해외통신원으로 최지선(파리 2대학 커뮤니케이션학 박사과정)을 위촉했다. 해외통신원은 2011년 12월까지 활동하며, 분기별로 해외언론법제 및 언론피해구제제도와 최신 ADR제도 동향에 관한 보고서 등을 분기별 2편씩 제출할 예정이다.

2011년 1월, 언론중재위원회는...



조정·중재신청 처리현황

위원회는 2011년 1월 모두 91건의 조정사건을 접수·처리했다. 처리결과별로 살펴보면 조정성립 22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15건(동의 4건, 이의 2건, 계속 9건), 조정불성립결정 11건, 각하 2건, 취하 33건(15건), 계류 8건이며, 피해구제율은 56.9%를 나타냈다. 피신청인 매체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문 31건, 인터넷뉴스서비스 14건, 방송 10건, 뉴스통신 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정신청 처리현황

구분 월	청구명	청구 건 수	처 리 결 과									피 해 구제율 (%)
			조 정 성 립	직 권 조 정 결 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계 류	
				동 의	이 의	계 속						
1월	정 정	46	12	1	2	6	6			14(4)	5	48.6
	반 론	3	2								1	100.0
	추 후											
	손 배	42	8	3		3	5		2	19(11)	2	62.9
합 계		91	22	4	2	9	11		2	33(15)	8	56.9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피해구제율=피해구제된 건수/조정건수

시정권고 현황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지난 1월 17일 1차 회의를 열어 자체 심의한 언론보도 중 총 38건의 법익침해 내용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침해유형별로 살펴보면 마약 용량·용법 공개 22건, 자살자 신원공개 15건, 사생활 침해 1건이며, 매체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 23건, 일간지 10건, 뉴스통신 3건, 주간지와 월간지 각 1건이다.

상담 현황

언론중재위원회는 2011년 1월 한 달 동안 250건을 상담했다. 상담 처리결과로는 조정절차 안내가 2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상담예정 40건, 타기관안내 25건, 기타 24건, 법적절차안내 8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 매체유형을 살펴보면 인터넷신문 82건, 일간지 77건, 방송 36건, 주간지 30건, 인터넷뉴스서비스 20건, 뉴스통신 1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 현황

언론중재위원회는 2011년 1월 한 달 동안 모두 13건의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을 실시했다. 대상 기관별로 보면 지자체 1건, 교육 연수기관 1건, 인터넷 프로그램 9건, 기타 2건이다.



위원회 소개

● 언론중재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나요?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7조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준사법적 독립기구로,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쉽고 빠르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조정·중재 신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14일 이내에 처리되며,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 신청 매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송, 정기간행물(신문, 잡지 등), 뉴스통신,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서비스(포털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 신청절차

1. 신청기간

조정·중재 신청은 대상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2. 신청인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개인은 물론 일반단체나 회사, 공공기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 언론중재아이넷(<http://people.pac.or.kr>)을 방문하시면 전자적인 방법으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이용방법과 관련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신 경우 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방문하시어 담당직원에게 신청 내용을 직접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 : 02)397-3000, 3010, 3100, 3110

e-mail : counsel@pac.or.kr

홈페이지 : www.pac.or.kr

트위터 : [www.twitter.com/pac_news](https://twitter.com/pac_news)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5층

“잘못된 언론보도는
사람과 사람을 멀어지게 합니다”



**신문·방송은 물론, 이제는 포털·인터넷 뉴스까지 -
언론중재위원회가 비용 없이 빠르게 해결해드립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조정·중재신청 접수는 방문이나
우편에 의한 방법 외에 구술, e-mail, 전자문서로도 가능합니다.
접수 후 14일 이내에 처리되며,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신문, 방송은 물론, 개정된 언론중재법으로
이제 포털·인터넷 뉴스까지-
언론중재위원회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언론중재위원회

언론피해상담 02)397-3000

이메일상담 counsel@pac.or.kr

온라인상담 http://people.pac.or.kr

이 광고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